

## 주말농원 참여자의 현황 및 재배작목 다양화에 대한 요구도 분석

김 영·김 은 자·이 상 영·이 승 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Analysis of the Degree in Demand for Diverse Cultivation Species by Current Status of Allotment Garden Participants**

Kim, Young · Kim, Eun Ja · Rhee, Sang Young · Lee, Seung Joo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orea

#### **ABSTRACT**

There is a need to develop diverse cultivation species with reference to the favorites and farming experiences of allotment garden participants, in addition to the crops being cultivated in the gardens. In this study, therefore, a survey on the status of cultivation and the demand for herb crops for the garden participants was conducted. Current trend of the programmes related to allotment garden for city dwellers, executed by various relevant organizations was analyzed. A questionnaire was accomplished by adult participants experiencing farming in allotments. Likewise, interview with farm proprietor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rop species cultivated in allotments was about ten species. The purchase of seeds and nursery plants was mainly dependent on the farmland proprietors. The selection of the crops was made by both wife and husband. The status of herb utilization indicated that 5.7% of participants were cultivating or had cultivated herb plants. Sixty-two percent of participants were not cultivating herb plants because they did not know how. The purposes of using herbs were for medicine and beauty (22.0%), for spices (22.0%) and for enjoyment (29.0%). Thirty-four percent (34.0%) of participants were interested or would like to use the herbs in the future for medicine and beauty, 39.0% for spices and 31.7% for enjoyment.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herbs would increase. Also, 78.3% of participants had the intension or had taken into consideration to cultivate the herb plants, if the farmland proprietors would provide the plants. And, they had interest in planting, management and post harvest utilization and if a reference material would be provided as well. An approach to plant new crops might be possible to those who have more than four years of farming experience and possess relatively high level of cultivation techniques. In conclusion, the favorable crop cultivation

접수일: 2008년 11월 14일    채택일: 2008년 12월 01일

**Corresponding Author:** Kim Young    Tel: 82-31-290-0274    Fax: 82-31-290-0207

e-mail: kimyoung@rda.go.kr

and soil management; nursery plant management; selection of plants and educational strategy corresponding to the participants' abilities; and rental process were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operation of allotment gardens and expanded number of participants. Moreover,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ity dwellers who have a lot of farming experiences in allotment gardens to mainta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This is so, because they are interested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nd most of them replied that they had intentions to move to rural areas in the future.

Key words: allotment garden, cultivation species, herbs, cultivation species development

## I. 서론

현대사회가 점차 전문화, 복잡화 됨에 따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인들은 예전과는 다른 상이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변화에 직면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현대사회 생활양식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과 업무과중, 만성적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이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해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많은 경험적 조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박진성 등 2008; 유지수 등 2008; 이동귀 등 2008)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로 인하여 단순히 먹고사는 생존의 절박성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사회적 생활양식, 즉 삶의 질에 대한 욕구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는 원예작물의 다수확이나 고품질에만 기울었던 관심이 이제는 원예작물과 인간과의 상호관계와 같은 연구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한국원예학회편 1999).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행위가 인간의 정서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심리학, 의학, 사회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조사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실험된 우주선 안에서의 비행사들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물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기도 하였고, 흙을 만지는 것이 정신질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기도 하였다. 손기철 등(1997)은 실내 식물을 볼 때 집중력과 긴장완화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미 식물을 통한 인간의 정서순화 교육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전쟁 후 폐허한 국민성을 화단이나 과원, 채원과 같은 정원을 가꾸게 하여 각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시킨 예가 좋은 보기이다. 오늘날에는 주말농원이 삭막하고도 강박한 도시민들의 정서순화 교육 현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가 많고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며 그린벨트 지역이나 경관이 좋은 지역에 있는 집을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기를 원한다(윤평섭 1999). '영국 BBC다큐멘터리 행복'은 2005년 5월 영국에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복위원회가 행복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이 텔레비전에 방영된 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중앙일보 2006) 행복10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동을 하라,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라, 대화를 나누라, 식물을 가꾸라, TV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여라,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으라, 친구에게 전화하라, 하루에 한번 유쾌하게 웃으라,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이 행복 10계명 중에서 주말농원에서 영농체험은 운동을 하고 식물을 가꾸는 일이므로 행복을 향한 2가지 실천사항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주말농원과 관련된 연구로 김성수 등(2002)은 주말농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말농원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말농원을 통해 신선채소를 공급받게 되지만 경제성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하였고, 주말농원에 참여하면서 자녀교육,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가족간의 이해증진, 스스로의 삶의 즐거움이나 만족감과 건강한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하였다. 나승일 등(2000)은 주말농원 참여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였고, 신동익(2005)은 서울 근교주말농원 실태 및 참여자의 인식조사와 발전방안 연구에서 서울 근교와 팔당호 인근의 주말농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석근과 황환주(1996)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관광농원 4곳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예작물 재배현황을 제시하였다. 권기춘(1995)과 이은희와 김용아(1998)는 주말농원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유찬주와 장동현(2002)은 주말농원 운영에 필요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말농원을 이용한 도시민의 만족도 조사와 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주말농원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를 실시 비교분석 하였다. 주말농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화장실, 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농작물 관리에 필요한 현장 기술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활동의 강화, 조직적 정비가 추진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허승수(2006)는 서울 근교 주말농원의 경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서울시 근교 24개 주말농원을 대상으로 경영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말농원 시설과 관리기준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김재원(2007)은 외국의 체제형 주말농원인 러시아의 다차,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농원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일형으로 개발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주말농원을 체제형 농장으로 전환, 발전시키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주말농원 운영을 위한 시설, 기준, 법규 등의 운영자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과, 이용하는 도시민의 입장에서 주말농원에 대한 인식, 이용현황, 효과 등에 대해 주로 연구되었다. 이제는 주말농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작물 식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박석근과 황환주(1996)는 관광농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 현황을 제시하면서 도시 수요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므로 분재재배, 분화재배, 화단 조성, 자생식물 재배 등의 농업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원예활동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민을 주말농장으로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2005)은 주말농원에서 농사 체험 시 선택적 작목부족으로 인한 작부체계 다양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말농원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작목선택과 재배는 주로 식용 채소로 농장주에 의해 권고되고 선택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화류 분화류 등 회원들의 취향과 영농경력 등을 고려한 다양한 작부체계와 재배작목 발굴에 대한 표준재배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말농원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은 경험이 없는 도시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용자가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 선택 할 수 있는 작목선택, 재배기술 등의 매뉴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증대와 인식 전환을 위해 대도시 인근지역에 주말농원, 텃밭가꾸기 사업 등 영농체험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주말농원 영농참여자의 작물 재배현황, 허브이용에 대한 관심, 금후 재배 및 이용의사 등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금후 주말농원에서 재배 할 수 있는 작물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주말농원 용어선정과 사업현황

### 1. 주말농원 용어선정

국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논문이나 보도자료, 인터넷 등에서는 주말농장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말농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터넷 포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2008)에서 ‘주말농장은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단위로 채소 등을 가꾸는 도시 근교의 농업 체험장으로 농업협동조합이 농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육성 계획에 따라 전국 110여개의 농장을 도시민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도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다. 농협중앙회(2008)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말농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주말농장이란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임대받은 농지에서 가족과 함께 만드는 작은 텃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박덕병 등(2005)은 「외국의 가족농원」에서 일본의 시민농원,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러시아의 다차를 소개하면서 포괄적인 의미로 가족농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2008.3.28 일부개정, 법률 9037호 시행일 2009. 1. 1)’은 농수산업 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제2조 9항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서 ‘주말농원사업은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말농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주말농원의 발달과 사업현황

우리나라에서 도시민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말농원의 발달과정은 권기춘(1995)에 의하면 현대적 개념의 주말농장은 1965년 수원에서 봉급생활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농장을 이용한 것 그 효시이다. 이 시기는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소득과 문화수준 등의 여건이 맞지 않아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후 1969년 속리산 주말농장이, 1971년 평택어린이 관광농장이 경영되었다. 1980년대 이르러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도 커져 이농현상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농가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고, 1992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을 추진하였다. 농협중앙회에서는 1993년부터 각 지역 단위농협을 통해 텃밭을 분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원은 서울의 경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텃밭가꾸기’ 또는 ‘주말농원’, ‘주말농장’이라는 사업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다. 주말농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4월(개장 전까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해당 농장주의 은행계좌로 회비를 납부

하면 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한 구좌 당 50,000원~120,000원이며 농장에 따라 다르다. 재배기간은 보통 4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로 농작물 파종에서 수확기까지이다. 1구좌 당 면적은 농장마다 다르나 보통 9.9~16.5㎡ (3~5평) 정도이다. 주로 심는 작물은 상추, 배추, 열무, 쪽갓, 아욱, 근대, 시금치, 갓 등이다. 역할 분담은 농장주는 밭갈이 및 이랑 만들기, 밑거름 주기, 종자, 비료, 모종준비를 하고, 회원은 씨뿌리기, 모종심기, 솟아주기, 김매기, 물주기, 수확 등을 맡는다.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는 주말농원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개설 해 주거나, 농장주소가 들어있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며, 주말농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작물별 재배기술 상담, 주요 작업요령 연시교육 등을 실시 한다. 주말농원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732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터넷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것이다.

Table 1. The areas of allotment garden in Korea (October, 2008)

Area	Allotment garden	Orchard	Stock farm	N(%)
				Total
Seoul,				
Incheon,	312(67.8)	131(28.5)	17(3.7)	460(100)
Gyeonggi				
Gangwon	10(83.3)	2(16.7)	0	12(100)
Chungbuk	16(69.6)	7(30.4)	0	23(100)
Daejeon, Chungnam	17(65.4)	7(26.9)	2(7.7)	26(100)
Jeonbuk	7(63.6)	4(36.4)	0	11(100)
Gwangju, Jeonnam	22(38.0)	29(5.0)	7(12.0)	58(100)
Daegu, Gyeongbuk	39(60.9)	19(29.7)	6(9.4)	64(100)
Busan, Ulsan, Gyeongnam	58(76.3)	17(22.4)	1(1.3)	76(100)
Jeju	2(100)	0	0	2(100)
Total	483(66.0)	216(29.5)	33(4.5)	732(100)

\* Referenc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ebpage(<http://www.weekfarm.com>) Reconfigurable

Month	2	3	4	5	6	7	8	9	10	11
Allotment Garden participants	Application period		Spring & Summer Crops growing				Pickled chinese cabbage & Radish prepared for Winter			
Allotment Garden proprietor	Application period		Personal guidance & Management			Improving soil Making a furrow Compost		Personal guidance & Management		

Fig. 1. Allotment garden operating system

### III. 연구방법

주말농원의 작물 재배현황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외곽지역과 근교 경기지역의 주말농원에서 농사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말농원은 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말농원 임대를 계약하고, 작물을 선택, 관리, 재배하는 적극적인 참여는 주로 성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서울에서는 주로 주말농원이 많이 모여 있는 서초구와 강동구가 해당되며, 경기지역은 남양주와 수원지역에서 조사하였다. 2006년 9~10월 기간에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주말농원에 농작업과 휴식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장주에게 조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 참여회원들이 농작업 후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주말농원 참여현황 및 재배작목, 작목선택, 허브이용 현황 및 관심, 농업에 대한 이해, 개인 일반사항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반찬거리 등 먹을 것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채소작목 이외에 차, 샐러드, 요리향료, 약용, 미용, 화분관상용, 드라이플라워, 수예품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브 재배 현황과 가정에서의 소비현황, 금후 요구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참여회원 조사와 함께 농장주 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장주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로부터 주말농원이 비교적 잘 운영되는 곳으로 추천을 받았다. 내용은 농장주로서 생각하고 있는 주말농원 운영의 핵심

사항, 관리방법, 회원들의 작목선택 현황과 교육, 재배관리 등이었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일반현황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주말농원에서 영농체험을 하면서 조사에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48.7%, 여성 51.3%이었으며, 연령은 40대 43.3%, 50대 27.3%, 30대 18.0%, 60대이상은 11.3%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하의 어린 자녀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300)

	Classification	N	%
Place of residence	Seoul	258	86.0
	Gyeonggi-do(Guri, Gunpo, Namyangju, Seongnam, Suwon, Anyang, Yongin, Uiwang, Incheon)	42	14.0
Gender	male	146	48.7
	female	154	51.3
Age(year)	30s	54	18.0
	40s	130	43.3
	50s	82	27.3
	60s	34	11.3
Income (n=299)	below 20 million won	32	10.7
	20 million~40 million won	73	24.4
	40 million~60 million won	72	24.1
	60 million~80 million won	59	19.7
	80 million~100 million won	35	11.7
Occupation	over 100 million won	28	9.4
	housewives	111	37.7
	administrative or office workers	79	26.3
	professionals	53	17.7
	merchants	23	7.7
	service providers	8	2.7
	manufacturers or distributors	17	5.7
others(including unemployed person)	9	3.0	
Education (n=299)	below middle school graduate	11	3.7
	high school graduate	78	26.3
	college graduate	166	55.5
	over college graduate	42	14.0
Area of growth	others	2	0.7
	urban	128	42.7
	rural	172	57.3

를 둔 가족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연간소득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 24.4%, 4천만원에서 6천만원미만 24.1%, 6천만원 이상은 40.8%로 비교적 고소득인 층에서 주말농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행정사무관련직 26.3%, 전업주부 37.7%, 전문기술관련직 17.7%, 학력은 대졸이 55.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고졸 26.1%,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14.0%였다. 유찬주(2002)의 연구에서도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직업은 전문직이 많고, 학력수준이 매우 높으며,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젊은층의 도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시절 주로 성장한 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자란 경우(57.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록 주말농원에서 소규모의 농사가 이루어지지만 어려서부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 주말농원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에 주말농원이 있는 경우 인근구리, 성남과 용인, 수원 등에 거주하기도 하며, 남양주의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등 주말농원 이용 동기에 따라 이웃과 함께 서울에서 외곽지역으로 또는 외곽지역에서 서울로 오게 되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Table 2).

2. 가족구성원과 주말농원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  
자녀를 중심으로 본 가족구성원은 딸자녀가

초등학교 이하 23.9%, 중·고등학교인 경우 25.5%, 성인자녀를 둔 경우가 50.6%이며, 가족구성원 수는 1가구당 평균 3.8명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형태는 부부와 자녀중심인 경우가 84.2%로 가장 많았고, 부부만 같이 거주하는 경우 5.0%, 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10.8%였다. 주말농원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구성형태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딸자녀가 유아·유치인 경우와 초·중학생인 경우 자녀교육과 자연학습의 장이 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고, 중·고등학교를 둔 부모의 경우 무공해농산물 수확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주된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성인자녀를 둔 경우는 무공해 농산물수확을 기대하면서 자연을 즐기거나 본인들의 건강증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Table 3, Table 4).

Table 3. The status of family constitution of allotment garden participants according to family constitution

Family constitution		N	%
Family member (n=297)	couple & children	250	84.2
	couple	15	5.0
	parents & couple & children	32	10.8
First child of participants (n=263)	infant	23	8.7
	elementary school student	40	15.2
	middle & high school student	67	25.5
	adults	133	50.6

Table 4. The main reason for participating allotment garden according to the first child of participants

Reasons	N(%)				
	Infant	Elementary school student	Middle & high school student	Adults	Total
To understand the nature	11(47.8)	23(57.0)	8(11.9)	7(5.3)	49(18.6)
To produce chemicals-free agricultural products	5(21.7)	6(15.0)	28(41.8)	65(48.9)	104(39.5)
For the health of family member	1(4.3)	3(7.5)	4(6.0)	18(13.5)	26(9.9)
To have a pleasant time	6(26.2)	4(10.0)	14(20.9)	10(7.5)	34(12.9)
To make good use of spare time	0	1(2.5)	0	6(4.5)	7(2.7)
For the delightful memory of farming	0	1(2.5)	0	3(2.3)	4(1.5)
To taste the pleasures of rural life	0	2(5.0)	13(19.4)	24(18.0)	39(14.8)
Total	23(100)	40(100)	67(100)	133(100)	263(100)

※ Organization of family was classified by the first child's age range

3.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주말농원 참여 현황

주말농원에서 영농체험을 하는 도시민은 체험을 하지 않는 도시민 보다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질문하였을 때 26.4%는 농업과 농촌에 매우 관심 있다고 하였고, 68.3%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하여 주말농원을 통하여 농업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추측 된다. 또한 어릴 때 성장과정에서 영농체험을 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13.3%는 영농경험이 많다고 하였고, 36.7%는 부모님을 돕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41.7%는 거의 또는 전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영농체험 경험도 없고 현재는 주말농원에 참여하지 않는 도시민이 금후에는 주말농원 참여자가 되어 농업체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70.0%는 주말농원에서 농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28.0%는 가끔씩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주말농원 참여현황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는 경우 35.8%, 2~3년째인 경우 36.8%로 첫째와 2~3년째인 경우 응답비율이 비슷하였으며, 4~5년은 16.2%, 6년~15년인 경우는 5.9%였다. 참여기간이 3년이 지나고 4년 이상인 경우는 참여율이 50% 이상 감소하는 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이것은 첫째, 유아유치 또는 초등학교생자녀를 둔 경우 주말농원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로 자녀교육을 위한 자연학습의 장으로 여긴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자녀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말농원에서 농사체험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교육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주말농원 참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참여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말농원에서 느낄 수 있는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이 3년 정도가 지나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성수(2002)의 선행 연구에서도 주말농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분석한 것과 같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주말농원에서의 프로그램이 경제적 효과보다 높지 못하므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유인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도시민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필요한데, 주말농원을 3년쯤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작목 재배를 시도하는 등의 다양한 식재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주말농원의 가구당 경작면적은 9.9~13.2㎡(3~5평)이 72.6%로 가장 많았고, 19.8~30.3㎡(6~10평)은 19.5%, 36.3~267.3㎡(11~81평)은 7.9%였다. 토지소유현황은 대부분 유료임대하는 경우가 83.6%로 가장 많았으며, 13.7%는 농협중앙회나 개인회

Table 5. The interest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experiences in farming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gardens by the allotment garden participants

Interest, experiences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N	%
Interest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n=299)	very Interested	79	26.4
	interested	204	68.3
	not interested	15	5.0
	others	1	0.3
Experiences in farming (n=300)	much experienced (very much)	40	13.3
	assisted parents with farming (much)	110	36.7
	volunteered in farming (medium)	25	8.3
	rarely or never experienced (rare)	125	41.7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allotment gardens (n=297)	active participation	210	70.0
	occasional participation	84	28.0
	rarely or never participation	3	1.0
	once visit	3	1.0

사에서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아는 사람에게서 개인의 토지를 무료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대요금은 1가구당 평균 96,860원/년을 지불하고 있으며, 5~9만원은 44.0%, 10~19만원 49.6%, 20만원 이상인 경우도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나 묘목구입은 주로 농장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74.9%로 가장 많았으며, 화원이나 종묘상으로부터 22.8%는 구입하고 있었다. 작목 선정은 주로 아내가 결정하는 경우는 46.4%,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31.0%로 무엇을 심을것인지에 대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많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6%는 자녀와 상의하거나 가족이 모두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4. 주말농원 재배작목 현황

주말농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종류 수는 2종~10종 이내 55.5%, 11종~20종 40.8%, 21~30종 3.7%로 가구당 평균 10종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종류와 재배빈도는 잎채소와 열매채소의 비중이 높았으며, 재배빈도는 상추(88.3%), 배추(88.3) > 엇갈이배추(75.3) > 열무(72.3) > 무(69.7) > 고추(67.3), 쪽갓(67.3) > 갓(41.7) 등의 순서대로 나타나 주로 쌈으로 이용하거나 김치재료가 되는 종류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잎채소는 상추 > 엇갈이배추 > 열무 > 쪽갓 > 갓의 순서대로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통이드는 잎채소와 꽃채소류는 배추가 단연 가장 많았고, 파류는 쪽파와 대파가, 열매채소는 고추, 토마토, 가지, 콩류는 강낭콩, 뿌리채소

Table 6. The status of allotment gardens

	Categories	N	%
Term of participation period (mean 2.7 years) (n=296)	1 year	106	35.8
	2~3 years	109	36.8
	4~5 years	48	16.2
	6~15 years	33	5.9
Cultivation area (n=298) mean(15.9m <sup>2</sup> )	9.9~13.2m <sup>2</sup>	216	72.6
	19.8~30.3m <sup>2</sup>	58	19.5
	36.3~267.3m <sup>2</sup>	24	7.9
Ownership of gardens (n=298)	of one's own	5	1.7
	rent (free)	41	13.7
	rent (with rental fee)	249	83.6
	others	3	1.0
Rental fee (mean 96,860 won) (n=248)	50,000~90,000 won	109	44.0
	100,000~190,000 won	123	49.6
	over 200,000 won	16	6.4
Number of species of cultivation plants (n=299) (mean 10 species)	below 10 species	166	55.5
	11~20 species	122	40.8
	over 21 species	11	3.7
Purchase of plants (n=299)	from farm proprietor	224	74.9
	from flower gardens and seedling distributors	68	22.8
	others	7	2.3
Selection of plants (n=300)	by husband	93	31.0
	by wife	139	46.4
	others	68	22.6



는 무, 감자류는 감자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농원의 재배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응답자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응답자를 포함하여 가족의 재배수준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재배하고 있는 경우는 44.6%, 농장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44.3%, 대부분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11.1%로 나타났다. 실제 주말농원 참여경력과 재배수준 비교 시 참여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들의 주말농원에서 작물 재배 수준도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농원에 참여했던 경력에 따라 재배하는 작물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면 상추와 배추는 재배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열무, 잇갈이배추, 무, 고추, 쪽갓 등의 재배비율이 거의 비슷하며, 재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집단과는 달리 치커리, 시금치, 대파, 청경채, 부추를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참여경력에 따라서 작물 재배수준이 비례하였으므로 응답자의 재배수준에 따라서도 재배하는 작물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le 7, Table 8).

Table 7. The species of plants cultivating in allotment gardens

Categories	Species of plants (%)
Leaf vegetables	Cettuce(88.3), Otgari cabbage(75.3), Young radish(72.3), Crown daisy(56.7), Mustard(41.7), Chicory(35.7), Perilla seeds(33.3), Spinach(27.7), Bok choy(20.7), Chard(14.3), Kale(14.0), Pak choi(3.3)
Flower vegetables	Cabbage(88.3) <sup>1)</sup> , Lettuce(var. crispa, 17.3), Lettuce(var. capitata, 6.3), Cabbage(4.7) <sup>2)</sup> , Broccoli(4.7)
Green onions	Allium fistulosum(26.7), Green onion(23.0), Korean leek(19.0), Garlic(2.3), Onion(0.7)
Fruit vegetables	Red pepper(67.3), tomato(35.7), eggplant(37.7), cucumber(18.0), Pumpkin(14.7), Green pepper(5.0), Strawberry(3.7), Corn(6.7), Watermelon(1.7), Melon(1.7)
Beans	Kidney bean(8.7), Unripe beans(5.3), Garden pea(3.0)
Root vegetables	Radish(69.7), Beet(13.0), Carrot(9.3), Turnip(2.7), Young radish(0.7)
Potatoes	Potato(17.7), Sweet potato(13.7), Taro(7.0)
Others	Marigold, Balsam, Sunflower, Groundnut, Ballonflower, Codonopsis lanceolata(2.7)
Mean: 10 species per house	

<sup>1)</sup> *Brassica campestris subsp. napus var. pekinensis* <sup>2)</sup> *Brassica oleracea var. capitata*

Table 8. The differences in the kinds of cultivation plants by the level of cultivation techniques of participants

Level of cultivation techniques	Kinds of plants (%)	N(%)
High level (self farming)	Lettuce(88%) > Cabbage(87) > Young radish(74), Otgaricabbage(74), > Red pepper(71), Radish(71) > Chrysanthemum(64) > Eggplant(44) > Leaf mustard(41) > Chicory(34), Tomato(34), Spinach(34) > Perilla seeds(32) > Green onion(30) > Pak choi(21), Leek(21)	133(100)
Medium level (Assistance is needed in part)	Cabbage(92%) > Lettuce(89) > Otgaricabbage(79) > Young radish(73) > Radish(71) > Red pepper(67) > Chrysanthemum(55) > Chicory(41) > Tomato(38) > Perilla seeds(35) > Eggplant(33) > Little green onion(23)	132(100)
Low level (Assistance is needed in whole)	Lettuce(91%) > Cabbage(79) > Otgaricabbage(70) > Radish(64), Young radish(64) > Red pepper(58) > Chrysanthemum(42) > Leaf mustard(39) > Tomato(36) > Perilla seeds(30)	33(100)
Total		298(100)

5. 허브이용 현황과 금후 의향

주말농원에서 현재는 대부분 채소중심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장차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여 허브식물 등 다른 작물의 재배의향을 물었다. 허브란 식물체의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를 음식이나 약재로 사용하거나 향기를 내는 데에 이용하는 식물이라고 응답자에게 설명해 주고 응답하게 하였다. 허브가 식물체의 뿌리, 줄기, 잎, 열매를 음식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주말농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채소의 대부분이 허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현재 쌈이나 나물, 김치재료 등 생채로 식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약용, 미용, 요리향료, 방향제, 관상용, 수예품 등으로 재배·이용할 수 있는 작물로 제한하였다.

현재 주말농원에서 허브를 재배하고 있거나 과거 재배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5.7%, 경험은 없으나 고려해 보았다는 경우는 29.2%, 고려해 본적 없다(65.1%)고 다수가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허브를 재배하지 않는 이유는 재배방법을

잘 몰라서(62.6%)라고 대부분이 응답하였으며, 토지의 임대기간이 짧아서 17.2%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응답자를 비롯하여 가족이 현재 집에서 허브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약용·미용(22.0%), 요리향료(22.0%), 화분관상용(29.0%)이었으며, 금후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은 것은 약용·미용(34.0%), 요리향료(39.0%), 화분관상용(31.9%)으로 향료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향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작물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작물의 종류를 선택할 때 대부분 농장주가 제공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농장주가 허브작목을 제공한다면 재배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8.3%가 재배 의사가 있거나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고, 재배와 관련된 안내책자가 제공된다면 중점적 제시를 원하는 부분은 식재방법(39.3%), 관리방법(34.3%), 수확 후 이용방법(31.3%) 등으로 나타났다(Table 9).

금후 허브작물 재배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학력에 따라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학

Table 9. The status of cultivating and using herbs for allotment garden participants

Categories		N	%
Experience in cultivating herbs (n=298)	cultivating the herbs at present	2	0.7
	cultivated the herbs in the past	15	5.0
	under consideration	87	29.2
	never considered	194	65.1
Reasons not to cultivate herbs (n=99)	because they do not know how	62	62.6
	no specific reasons	6	6.1
	short term of rental period	17	17.2
	no interest	4	4.0
	others	10	10.1
Purposes of using the herbs at home (multi-responses, n=300)	for medicine & beauty	66	22.0
	for foods, tea and spices	66	22.0
	for aroma	50	16.7
	for enjoyment	87	29.0
	for dry flower and handicraft	12	4.0
	no interest	90	30.0
Necessary information (multi-response, n=300)	kinds of herbs	71	23.7
	how to cultivate	118	39.3
	how to manage	103	34.3
	how to use after harvest	94	31.3

력이 고졸인 경우는 30.8%가 재배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대졸인 경우 16.8%만이 재배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성인자녀를 둔 즉 연령이 비교적 많은 집단에서 주말농원 참여동기를 교육보다는 무공해 농산물 수확이라고 응답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초중등자녀를 둔 30대, 40대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말농원을 찾는다고 하였으므로 보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보여줌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젊은층에서 농산물을 주로 먹는 것에서 이제는 보고, 즐기고 생활주변을 가꾸는 취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작물 재배수준에 따라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재배의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힌 응답은 재배수준이 높은 경우(37.6%)와 재배수준이 낮은 경우(36.4%)에서 나타나 재배수준에 따라서 새로운 작물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일관성이 보여지지 않는다.

참여경력에 따라서도 재배수준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의향이 있거나 고려해보겠다는 응답은 참여경력이 첫해이거나 6년 이상된 경우에 80%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의향이 있다고 적극 의사를 나타낸 경우는 4~5년

된 경우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년 이상인 경우는 41.2%로 참여경력이 증가 할수록 새로운 작물 재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후 허브 등 새로운 작물에 대한 접근은 참여경력이 4년 이상인, 작물 재배수준이 비교적 높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Table. 10).

작물 재배수준이 높고 참여경력이 많은 도시민이 허브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나타났으므로 허브 중에서도 어느 용도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샐러드, 차, 요리향료(39.7%)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다음으로 약용, 미용으로 이용하거나(33.9%) 화분관상용(30.8%)이라고 하였다. 재배수준별로 보면 재배수준이 높은 경우는 샐러드, 차, 요리향료와 화분관상용이 응답자가 많으며, 재배수준이 보통인 경우 약용, 미용과 샐러드, 차, 요리향료에 응답을 하였다.

참여경력에 따라서도 재배수준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여경력이 6년 이상인 경우 샐러드, 차, 요리향료와 화분관상용에 응답이 높고, 첫 회인 경우는 약용, 미용과 샐러드, 차, 요리향료에 많은 응답을 하여 재배수준과 참여경력에

Table 10. The intention of cultivating herbs for the participants by education, the level of cultivation techniques and farming experiences

		N(%)			
	Categories	In participating	Interested	Not intended	Total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5(45.5)	1(9.1)	5(45.5)	11(100)
	high school graduate	27(34.6)	27(34.6)	24(30.8)	78(100)
	college graduate	70(33.7)	103(49.5)	35(16.8)	208(100)
	total	102(34.3)	131(44.1)	64(21.5)	297(100)
Level of cultivation techniques	self-farming	50(37.6)	53(39.8)	30(22.6)	133(100)
	assistance is needed in part	40(30.3)	61(46.2)	31(23.5)	132(100)
	assistance is needed in whole	12(36.4)	17(51.5)	4(12.1)	33(100)
	total	102(34.2)	131(44.0)	65(21.8)	298(100)
Farming experiences	below 1 year	39(36.8)	50(47.2)	17(16.0)	106(100)
	2~3 years	26(23.9)	52(47.7)	31(28.4)	109(100)
	4~5 years	24(50.0)	13(27.1)	11(22.9)	48(100)
	over 6 year	14(41.2)	14(41.2)	6(17.6)	34(100)
	total	103(34.7)	129(43.4)	65(21.9)	297(100)

**Table 11.**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purpose of using herbs by the level of cultivation techniques and the farming experiences(multi-response)

Categories		Medicine & beauty	Foods, tea, and spices	Aroma	Enjoyment	Handicraft	Uninterested	N(%)
Interest in using the hubs due to the level of cultivating	self-farming	39(29.3)	50(37.6)	22(16.5)	41(30.8)	7(5.2)	26(19.5)	133(100)
	assistance is needed in part	52(39.4)	55(41.7)	24(18.1)	39(29.5)	10(7.6)	20(15.1)	132(100)
	assistance is needed in whole	10(30.3)	12(36.4)	9(27.3)	13(39.4)	4(12.1)	3(9.1)	33(100)
	total	101(33.9)	117(39.7)	55(18.5)	93(31.2)	21(7.0)	49(16.4)	298(100)
Interest in using the hubs due to the level of participating	below 1 year	43(40.5)	44(41.5)	28(26.4)	36(34.0)	5(4.7)	12(11.3)	106(100)
	2~3 years	33(30.3)	39(35.8)	12(11.0)	28(25.7)	9(8.6)	26(23.8)	109(100)
	4~5 years	16(33.3)	21(43.8)	11(22.9)	19(39.6)	4(8.3)	4(8.3)	48(100)
	over 6 years	10(30.3)	13(39.4)	3(9.0)	12(36.4)	3(9.0)	6(18.1)	33(100)
	total	102(34.5)	117(39.5)	54(18.2)	95(32.0)	21(7.1)	48(16.2)	296(100)

따라서 다양한 허브작물 중에서도 이용방법에 따라 권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able 11).

**6. 주말농원 농장주 인터뷰 결과**

효율적인 주말농원의 운영과 참여회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참여하는 도시민의 인식이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시설과 기반을 제공하고 작물 선택과 재배에 대한 리더역할을 하는 농장주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말농원 참여자의 재배수준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55.4%이며, 종자나 묘목을 농장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74.9%로 농장주가 제공하고 권유하는 작물 중심으로 재배가 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농장중에서 농장주 5명과 인터뷰한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 내용은 주말농원 운영의 핵심사항, 관리방법과 회원들의 작물선택 현황과 교육, 재배관리 등이었다.

농장주와 도시 참여자 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고 지속적인 계약을 위해 첫째, 작물이 잘 자라도록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휴식을 주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나 농산물 생산이 주요 목적인 경우 관계없이, 작물이 병에 걸리거나 다른 가구에 비해 수확량이 현저히 낮으면 참여자의 실망감이 크다. 회원들 본인 스스로의 재배수준

은 고려하지 않고 작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점차 의욕을 잃어가므로, 토양관리를 포함한 농장주의 세심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묘목 관리이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별로 기온차가 있으므로 소재하는 주말농원에서 잘 자라는 작목이 조금씩 다르다. 주말농원에서 직접 묘목을 키워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므로 작물이 냉해로 인한 피해가 적도록 대비하기도 한다. 셋째, 작목 선정은 초보회원들의 경우 쉽게 재배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작목을 권유하고 있다. 4년~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회원들 스스로 판단하여 작목을 조금씩 바꾸어 재배하고 있다. 넷째, 계약기간이 4~11월 기간으로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고, 회원에게 주어지는 토지의 위치가 다르므로 월동 작물이나 다년생작물 재배는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가을 김장채소 재배를 위해 8월 말경 일괄적인 경운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농산물을 수확 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므로 작부체계가 다른 작물 재배는 임대하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다. 다섯째, 참여자들의 재배수준도 참여했던 경력에 따라 등급화하여 혜택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주말농원에 참여하는 회원은 장차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농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 농장주에게 더욱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말농원에서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주말농원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토지구획을 정해주고 작목을 선정해주며, 관리, 재배방법 등을 컨설팅 해 주고 틈틈이 작물이 잘 자라는 지 돌보아주는 역할까지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주말농원 참여가 처음이고 작물재배 경험이 거의 없는 도시민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다수가 재배하는 작목 중심으로 권유를 하며, 참여경력이 있고, 재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기존의 작물 이외에 식용꽃이나 허브 등 취미레저형 작물을 권유하여 참여자가 다음해에는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주말농원은 1년 단위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8월에 일괄적인 경운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작부체계가 해당 농장과 다르거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므로, 참여경험이 많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분리된 구역에 일정 구획을 정해서 임대해주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새로운 작목과 재배·관리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제공되었을 때 초보자에 비해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전문가 자료 보급의 적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허브에는 다양한 종류와 쓰임새가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약용, 미용, 샐러드, 차, 향료, 방향, 관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허브가 어떤 것이 해당되는 지, 또 어떤 종류가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 찾아오는 참여자가 재배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주말농원에서 비교적 관리가 쉽고 용도의 쓰임이 많거나, 도시민이 원하는 용도에 맞는 허브작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주말농원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도시민은 좀 더 넓은 재배농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경기도 인근지역 농촌으로 주말농원의 위치를 옮겨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이 곧 도시인근의 체류형 주말농원의 수요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V. 요약 및 결론

주말농원 이용 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 이외 참여자의 취향과 참여경력을 고려한 다양한 재배작목 발굴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므로 주말농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재 재배현황과 금후 허브작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였다. 취미레저형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주요기관의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원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주말농원에서 농사를 체험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농장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주말농원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내용은 주말농원 참여현황 및 재배작목, 작목선택자, 허브이용 현황 및 관심, 금후 책자에 소개하기를 바라는 내용 등이었다.

주말농원에 재배하고 있는 작목의 종류는 10종 내외로, 종자나 묘목구입처는 농장주에게 주로 구입하며, 작목 선정은 아내와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허브이용 현황은 현재 5.7%가 허브를 재배하거나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29.2%는 경험은 없으나 고려해 보았다고 하였고, 허브를 재배하지 않는 이유는 62.6%가 재배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집에서 허브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약용·미용 22.0%, 요리향료 22.0%, 화분관상용 29.0%이며, 금후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은 것으로 약용·미용 34.0%, 요리향료 39.0%, 화분관상용 31.7%로 나타나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장주가 허브작목을 제공한다면 78.3%가 재배의사 있거나 고려해보겠고, 책자가 제공된다면 주로 식재방법, 관리방법, 수확 후 이용방법에 중점적 제시를 원하고 있었다.

주말농원 참여경력에 따른 재배작물의 차이를 보면 상추, 배추, 열무, 엇갈이배추, 무 등 쌈과 김치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수준이 높은 경우는 치커리, 시금치, 대파, 청경채, 부추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참여경력이 많고 재배수준이 높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작물 재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금후 허브작물에 대한 재배의사는 초중등 자녀를 둔 30대, 40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주말농원을 찾는다고 하였으므로 보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작물 재배에 대한 접근은 참여경력이 4년 이상인, 작물 재배수준이 비교적 높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도 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허브 이용계획에 대한 관심은 샐러드, 차, 요리향료, 약용, 미용, 화분관상용에 많은 응답을 보였다. 재배수준이 높은 경우는 샐러드, 차, 요리향료와 화분관상용이 응답자가 많으며, 재배수준이 보통인 경우 약용, 미용과 샐러드, 차, 요리향료에 주로 응답을 하였다.

지속적인 주말농원의 운영과 참여회원의 확대를 위하여 양호한 작물 재배와 토양관리, 묘목관리, 회원 수준에 맞는 작목선정과 교육의 전달, 임대방법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주말농원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도시민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장차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농업과 농촌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권기춘(1995) 주말농원의 운영실태와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수·이채식·주대진(2002) 주말농장 참여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9(1), 29~41.  
 김재원(2007) 외국의 체재형 주말농장 사례를 통한 한국식 체재형 주말농장 형태에 대한 제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승일·조륙환·김대일(2000) 주말농장 참여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2), 141~160.  
 농림수산식품부(2008) 농어촌정비법. (2008. 11. 1). <http://www.mifaff.go.kr>.  
 농촌진흥청(2005) 도시가족의 영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4H본부 부설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농협중앙회(2008) 주말농장. (2008. 11. 1). <http://www.weeknfarm.com>.  
 네이버(2008) 주말농장. (2008. 11. 1). <http://www.naver.com>.  
 박덕병·강승봉·이상덕·이혜현·박윤정(2005) 외국의 가족농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촌진흥청: 울지글로벌.  
 박석근·황환주(1996) 서울근교 관광농원 및 주말농장의 원예작물 재배현황과 운영에 관한 연구. 관광농업연구 3(1), 141~155.  
 박진성·신현정·박애순(2008) 어머니의 사고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55~72.  
 손기철·박석근·부희옥·배공영·백기엽·이상훈·허복구(1997) 원예치료. 도서출판 서원.  
 신동익(2005) 서울 근교 주말농장 실태 및 참여자 인식조사와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지수·장수정·최은경·박지원(2008) 대한간호학회지 38(3), 410~419.  
 유찬주·장동현(2002)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12(1), 63~88.  
 윤평섭(1999) 환경미학. 문운당.  
 이은희·김용아(1998) 주말농장 이용 실태 분석. 한국조경학회지26(1), 83~95.  
 이동귀·김혜영·최해연(2008) 한국심리학회지 22(1), 63~77.  
 중앙일보(2006) 영국 BBC다큐멘터리 행복. 2006. 7. 3. 19면.  
 한국원예학회편(1999) 신계생활원예. 향문사.  
 허승수(2006) 서울 근교 주말농장의 경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